

工學碩士 學位論文

휴먼다큐멘터리의 현대성 연구 : 종합병원사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鄭 容 錫

이 論文을 工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釜慶大學校 産業大學院

寫真情報工學科

安 春 遇

이 논문을 안춘우의 공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04년 12 월 18 일

주 심 오 정 수



위 원 정 용 석



위 원 황 철 환



A Study on the Modernism in Human Documentary – with photos in general hospital

An Chun Woo

Department of Photographic Science & Informat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dustr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Lewis W. Hine who was one of the early performers of documentary photography defined documentary as photography added to realism. The history of documentary photography has been developed into a form of art by the photographers who had tried to work of art with the ideology and the emotion by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life in front of the camera. In human documentary photography the scene of human life should be made observation truthfully and the natural expression of life should come into view. Sincere human life expressed in the photographs is itself beautiful and the photographs touch with compassion.

One of serious human sufferings today would be the physical pain. A human being would feel a lot of pain from the birth till the death. Hospital is the place to treat the pain. The moment of the birth, the scenes of the waiting room, the doctor and the patient in practice with a friendly smile, the sight of the operation, the appearance of a patient who is waiting for the death in the emergency room, all of these photographs could make us feel humanism in the general hospital.

Human documentary photography should appeal to the sympathy and

human affection should be premised in it. The affirmative attitude to a human, that is the root of humanism. Humanism means a basic attitude to a human. The methods of the expression and the ways of the interpretation in all kind of arts are different, but the core is the same, namely human affection.

The theme of this study was affected by the expression of humanism of W. Eugene Smith. His human affection and human dignity will continuously guide the author's photography.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내용	2
II. 본론	3
1. 휴머니즘의 시대적 전개과정	3
1) 휴머니즘의 개념	3
2) 휴머니즘의 성장과 변화	4
(1) 고전적 휴머니즘(협회의 휴머니즘)	4
(2) 휴머니즘의 변화	4
(3) 현대의 휴머니즘	5
3) 휴머니즘의 한계와 진정한 휴머니즘	7
(1) 고대의 휴머니즘	7
(2) 근대의 휴머니즘	7
(3) 현대의 휴머니즘	7
2. 다큐멘터리의 정의	9
1)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개념	9
2) 다큐멘터리의 특성	12
3.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가	14
1) 초기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가	14
(1) 제이콥 A. 리스(Jacob A. Riis)	14
(2) 루이스 하인(Lewis W. Hine)	16
2) F.S.A 휴먼다큐멘터리 사진가	18
3) 다큐멘터리 사진의 진정성	21

4. 작품의 전개과정 및 작품내용 분석	24
1) 작품의 전개과정	24
2) 작품내용 분석	26
 Ⅲ. 결 론	28
 참 고 문 헌	30
부 록	32
1. 도판사진	33
2. 작품사진	41
감사의 글	58

I. 서 론

1. 연구 목적

사진이 발명, 발견된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사진가들에게 끊임없이 촬영의 대상이었다. 문학이든 예술이든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진은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간 삶의 관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언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의사소통과 기록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사진에 있어서 의사소통과 기록은 곧 다큐멘터리 사진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며, 다큐멘터리 사진의 개념과악과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사진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¹⁾

오늘날의 사진은 어떤 문화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사진에 대한 학문적, 문화적 수준도 폭넓게 증진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결과들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사진의 성공은 단순한 목적자가 아닌 시대의 기록자로서 인간의 다양한 삶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의 활동과 시대에 끼친 그들의 업적을 서술하고자 하며, 또한 인간의 삶 속에 종합병원이라는 곳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추었다.

1) 박희진 「다큐멘터리 사진운동으로서 FSA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1994, p1

2. 연구 내용

다큐멘터리 사진은 우리 자신의 세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우리들이 인간과 그들의 처한 환경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한다. 19세기에는 사진이 현실의 대용물이었고, 그것은 강한 충격을 남기에 충분 했다.²⁾ 그에 대표되는 제이콥 A. 리스(Jacob A. Riis)와 루이스 W. 하인(Lewis W. Hine)의 다큐멘터리 사진과, 미 농업 안정국(F.S.A)의 여류 사진가인 도로디어 랭(Dorothea Lange)과 인간 존엄성과 인간 사랑을 극대화 한 유진 스미스(W.Eugene Smith)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펼쳐온 사진운동 즉, 휴먼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그들의 업적을 고찰하여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포토 캠페인을 사회개혁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사회의 모순을 변화시킨 작가들의 정신을 휴머니즘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다큐멘터리 사진에서의 휴머니즘 정신을 규명하고자 하고 또한 인간의 생·노·병·사의 집약체인 종합병원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모습을 흑백사진으로 담아 휴머니즘에 입각한 다큐멘터리 사진의 인식을 표현 하고자 한다.

다큐멘터리의 종류는 그 기록의 대상이나 기록에 임하는 작가의 태도에 따라 역사 기록 (Historical Document)과 인간 기록(Human Document), 사회 기록 (Social Document)의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³⁾ 본 연구에서는 인간 기록인 휴먼 다큐멘터리의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 시켰다.

2) 임영균 옮김 「다큐멘터리 사진론」, 눈빛, 1997, p33

3) William Stott, 「Documentary expression and thirties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pp.5-25.

Ⅱ. 본 론

1. 휴머니즘의 시대적 전개과정

1) 휴머니즘의 개념

Humanism(휴머니즘 ; 인간주의 · 인본주의 · 인문주의 · 인도주의)이란 인간성의 해방과 옹호를 이상으로 하는 사상 또는 심적 태도. 인간과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함으로써 인간성을 말살 시키려는 모든 장애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려는 것. 즉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중시하는 사상이나 이론체계의 통칭이다.

휴머니즘은 라틴어로 ‘인간성’을 의미하는 〈human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 모든 인간적인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세 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입장을 뜻한다.

좁은 의미의 휴머니즘은 14~15세기 르네상스 때부터 역사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 했는데, 특히 14세기말 이탈리아에서 기원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된 이레 근대문화의 요소들 중 하나를 형성한 철학 및 문화운동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휴머니즘은 이러한 인간성 존중의 태도를 포함하는 것을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인류역사에 있어 사회와 국가 조직 및 학문과 문화가 성립되어 있던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 및 사회의 여러 제도들이 형성되면 지배와 피지배, 객관적 제도와 개인적 욕구 사이에는 괴리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인간성에 대한 왜곡과 억압에 저항하는 흐름이 휴머니즘을 낳게 만들기 때문이다.

2) 휴머니즘의 성장과 변화

(1) 고전적 휴머니즘(협의의 휴머니즘)

14~15세기 상공업 발달과 부의 축적으로 봉건사회 내부에 모순이 확대되고 있던 이탈리아 사회를 중심으로 봉건제도 및 개인의 봉건적 예속을 거부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중세 교회의 세계관과 인간관을 초월하여 본래의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나타났다. 즉, 휴머니즘은 중세 스콜라철학과 가톨릭교회의 정신적인 지배를 타파하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모범으로 하여 교회의 권위로부터 독립적이며 지식과 이성에 근거한 세계상 및 인간상을 창조하려는 발전적인 사상이었다.

단테를 비롯하여 보카치오 · 에라스무스 등으로 이어지는 휴머니스트들은 고대의 교양 · 이성을 되살린 새로운 지식으로 억압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자립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인간성을 탐구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휴머니즘 운동은 부유하고 교육받은 계층에만 국한되어 있어 귀족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노예 지배를 토대로 한 소수자의 자유와 다른 민족을 야만인으로 규정하는 일면적이고 귀족주의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르네상스기의 휴머니즘은 직접적으로 인간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신성과 봉건적 지배에 의해 제한된 인간성을 재생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 초기 부르주아운동의 산물이었다. 이 시기까지의 휴머니즘은 고전적 · 귀족적 휴머니즘이라 한다.

(2) 휴머니즘의 변화

고전적 휴머니즘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과학의 합리적 정신과 결부된다. R.데카르트는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진리를 탐구하였다.

휴머니스트의 진정한 이념이 새로운 과학이나 기술과 결부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질된 셈이다. 이와 같은 과학과 휴머니즘의 통일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계승되면서 '진보의 관념'을 낳게 한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이 전 유럽을 휩쓸게 되면서 휴머니즘의 이상은 새로운 시민사회를 건설하려는 부르주아 시민혁명의 지도이론으로 되어 시민적·부르주아적 휴머니즘으로 발전하였다. 근대 과학적 지성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확산되면서 휴머니즘은 개인의 자주성 인정에서 더 나아가 사회 개혁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으로, 독일에서는 신희머니즘이라는 정신운동으로 나타났다. 헤르더, 괴테, 실러를 중심으로 한 신희머니즘 운동은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재현으로 독일 계몽사상의 추상적인 합리주의와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항, 새로운 인간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는 봉건세력에 대항한 다소 추상적 개념의 휴머니즘이 J.S 밀에 의해 인간의 성적 평등, 사상적, 종교적 자유가 주장됨으로써 구체성을 띠게 되었으며 시민 민주주의 이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3) 현대의 휴머니즘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와 과학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만연된 인간소외 현상과 물질주의 풍조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존엄성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인간성 회복에 대한 휴머니즘의 이상을 더욱 확산시켰다. 이 시기의 휴머니즘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하나가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이다. 인간의 현실적 존재에 관심을 갖고 인간의 참된 본래성을 고수하려 한 이러한 움직임은 철학자 니체, 야스퍼스, 하이데거를 비롯하여 볼스토이, 몰랑, 간디, 사르트르, 보부아르, 카뮈 등으로 연결되어 비인간적인 폭력과 파시즘에 대항하였다.

다른 하나는 이미 19세기 중엽 이후 전개되어온 사회주의적 휴머니즘이다. K.마르크스, F.엔겔스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이 움직임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를 반대하고 노동계급의 해방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 20세기 초 독일에서는 고전연구자들에 의한 제 3 인문주의 운동이 있었으며, 진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동과 경험에 의해 생기는 실제적 유용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실용주의적 세계관도 인격과 인간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휴머니즘이라 불렀다.

20세기 중반 이후 핵무기 등 전쟁에 의한 인류의 절멸 위기와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비인간화의 위기 속에서 인간화에 대한 관심이 생존권과 직결된 전 지구적인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국적을 초월한 그린피스 등의 지구환경보존운동이나 반핵평화운동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흑백 인종차별 문제 등에 관한 인류의 관심은 휴머니즘이 지역적,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공통 관심사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휴머니즘의 한계와 진정한 휴머니즘

이상 여러 예가 보여주듯 휴머니즘은 각 시대와 사회적 배경에 따라 실로 여러 가지 사상 형태로 등장한다.

(1) 고대의 휴머니즘

그리스인들은 신을 인간에 근접시킴으로써 세계를 인간 중심의 체제로 인식(인본주의)하는 동시에 고매한 인간성을 도야(인성주의)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의 한계는 인간다움(humananitas)이란 인간성의 이상(理想)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문명인만이 가질 수 있는 ‘우아함’ 정도의 특별한 인간다움을 나타낸다. 당시의 지배계급은 신이란 개념을 형편없이 격하시키는 동시에 피지배계급에 대해서는 동물에 준하는 압제를 가하였다.

(2) 근대의 휴머니즘

중세 교회의 하나님을 앞세운 압제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세속적인 인간 그 자체로서 인식하려고 하는 인간성의 육성운동(인본주의)을 말하며, 이것의 한계는 휴머니즘이란 교회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교황청의 귀찮은 착취로부터 벗어나자는 운동이었지 참다운 인간성 회복운동은 아니었다.

(3) 현대의 휴머니즘

신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킨 소수의 권력자들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압제를 시도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정치적 각각을 통해서 자유와 인간성의 존엄을 추구하고, 문학을 중심으로 한 예술 활동을 통해서 인간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운동(신인본주의)을 말하며, 앞으로는 더욱 발달한 과학문명에 얽매이

게 될 인간들은 기계와 빅브라더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되찾고, 보다 자연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면서 사고와 감성의 자유를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휴머니즘이란 말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인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 속에서 인간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모든 개인을 독립된 개체로서 존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서로 하나됨을 대하듯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풍속, 습관, 사상이 자기들과 같은 인간만을 인간다운 인간이라 생각하고, 그 밖의 인간을 모두 인간의 규범에서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독단적인 사고방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국 중심주의등 자기를 초월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해나가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휴머니즘 자체를 초월한다’ 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진정한 휴머니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다큐멘터리의 정의

1)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개념

사진이 담고 있는 신빙성은 증거와 자명성으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사진을 ‘다큐멘터리(documentary)’라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사실의 근거나 증거로서 신뢰되는 원래의 공식적 문서 - 가장 넓은 의미로, 어떤 글이나 책, 또는 정보를 담고 있는 기타 일체의 도구를 포함한다.”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어떤 사진이라도 가령 거기에 연구할 만한 특별한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음이 발견된다면, 하나의 다큐멘트로 간주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는 ‘가르친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도세르(docere)’에서 유래 되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한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회 양상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을 교화 한다.

또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는 증명이나 증거를 뜻한다. 사진의 목격자로서의 기능은 상황이나 상태를 알 수 있는 훌륭한 기초가 된다.

사진에서 ‘다큐멘트’라는 용어는 20세기초 으젠노 앳제(Eugene Auguste Atget)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그는 파리의 쿵파뉴 1번가 31번지, 그의 5층 암실 문 위에다 「예술가들을 위한 다큐멘트」라고 손으로 쓴 종이 조각 한 장을 붙여 두었으며 그것은 곧 사진에 있어서 「다큐멘트」란 용어 사용의 시작이었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인 레닌(Lenin)은 “우리에게 있어 영화는 가장 중요한 예술이다.”⁵⁾라고 선언했으며, 그것은 곧 영화에 있어서도 다큐멘터리의

4)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C.C. Merriam Co.,1956, p.244. 장진우 옮김, 『사진의 역사』, 영화당, 2003, p.259 재인용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영화에 있어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는 프랑스 영화제작자들에 의해 「다큐망테르(Documentaires)」란 프랑스어로 최초로 만들어 지고 사용 되어진 영상 언어이며, 그것은 촬영기사의 전문적 숙련도에 의해 재해석된 소재중심의 사실적인 여행 사진에 지나지 않았다. 영국의 영화 제작자인 존 그리어슨(John Grierson ;1929년 유망선(Drifters)을 제작)은 다큐멘터리의 개념을 체계화한 최초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리얼리티(Reality)를 선택 창조해내는 예술형태라고 생각해온 그리어슨은 로버트 플래허티(Robert Flaherty)가 제작한 「모아나(Moana)」라는 영화를 비평하면서, 이 작품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본질이라고 평함으로써 플래허티를 다큐멘터리의 개념에 있어서 중요 인물로 자리 잡게 하였다.

1932년 그리어슨은 영화에 있어서 다큐멘터리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다큐멘터리의 기본원칙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는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큐멘터리는 기술적으로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매체이다. 왜냐하면 사회의 진실된 소리와 모습을 듣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큐멘터리는 지역사회의 생활과 정보를 선택적이고, 창조적으로 분류, 제공하여 공동체 삶을 유지하게 하는 예술 형태이다.

셋째,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자유공동체의 임부가 그 스스로 갖고 있는 믿음의 체계로부터 스스로의 리얼리티를 창조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즉 현실 속에서 현실을 재창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⁵⁾

그리어슨이 1932년에 발표한 다큐멘터리에 관한 주장은 20세기 후반에 이른

5) 임영균 역, 「다큐멘터리 사진론」, 눈빛, 1993, p.13

6) 박희진 「다큐멘터리 사진운동으로서 FSA에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1994, p6.

요즈음에도 그렇게 동떨어진 것은 아니며, 다큐멘터리의 개념을 설정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사진에 있어서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개념을 찾는다면,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839년 사진술이 세상에 처음 공포 되어지고 유럽의 사진은 싸롱 사진(Salon Photo)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전쟁사진이나 개척사진(Frontier Photography)의 전통을 이어 받은 미국의 사진가들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카메라로 기록하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현실이나 대중의 일상성을 충실히 기록하고 알리는 것도 싸롱 사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 하였고 이러한 단순한 동기에서 미국 다큐멘터리 사진이 출발하게 되었다.

2) 다큐멘터리의 특성

다큐멘터리에 대한 정의는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세계 최초로 개최된 다큐멘터리 영화연맹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란 경제, 문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인간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그 욕구를 자극 시키며, 문제와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성이나 감성에 호소하기 위해서 사실의 촬영이나 진지하고 이치에 맞는 재구성을 통해 해석되는 사실의 모든 면을 기록하는 방법들을 말한다.」⁷⁾

사진이 담고 있는 신빙성은 증거와 자명성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진이라도 그 사진 하나만으로도 연구할만한 특별한 주제에 관한 유용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다큐멘터리로 간주할 수 있다.

야수와 화가인 앙리 마티즈는 1908년 『카메라 워크』 지를 통해 “사진은 실재하는 가장 정확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관점에서 비릇하는 그 가치를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재능 있는 사람에 의해 실현된다면 그 사진은 예술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아무튼 사진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큐멘트를 남겨 주어야 한다.”⁸⁾라고 주장 하면서 사진의 다큐멘터리에 의한 예술적 가치는 타 예술분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마티즈의 주장은, 사진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사실 그 이상의 것은 사진가의 능력에 의해 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 주는 것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특성은 기록성에 있다. 기록성이란 현실의 충실한 목격자인 사진가에 의해 기록으로 남아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임을 입증하게 된다. 또

7) Paul Rotha, Documentary Film, (New York: Hastings haus, 1952) p.30

박희진, 앞의논문, p.10 재인용

8) Camera Work, no.24, 1908, p.22. 정진국 『사진의 역사』 열화당, 2003, p.259 재인용

다른 특성은 전달성에 있다. 전달성이란 사진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큐멘터리에 담겨있는 내용과 의미는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 들이는자의 측면에서는 이데올로기의 전달이라는 과급효과를 느낄 수 있다.

3.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가

1) 초기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가

세계의 모든 사진가들이 회화주의사진에 빠져 있을 때 미국의 사진가들은 남북전쟁과 서부개척정신을 이어받아 다큐멘터리 작업에 한층 더 심취하여 사진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이해와 설득으로 인한 캠페인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였다.

당시 미국은 수많은 이민행렬이 이어졌으며, 보스톤과 필라델피아, 그리고 뉴욕 같은 지방에서는 과도한 인구밀집 현상과 함께 하부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거리가 형성되었으며 질병과 범죄들로 가득 찬 빈민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정책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사진들이 사용 되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사진가로는 제이콥 리스(Jacob A. Riis)와 루이스 하인(Lewis W. Hine)을 들 수 있다.

(1) 제이콥 A. 리스(Jacob A. Riis)

먼저 제이콥 리스는 사진에 의한 사회개혁에 관심을 두었던 최초의 사진가로 손꼽을 수 있다. 리스는 1849년 덴마크의 리브에서 출생하여 1870년 뉴욕으로 이민 가서 공황시대의 최저의 생활을 빈민가에서 7년간이나 맞본 후에 뉴욕 트리뷴과 이브닝 선지의 기자로 취직되어 경찰서 담당 기자로 일하게 되었다. 또한 리스는 사회개혁자적인 입장에서 최초의 포토 캠페인을 행 하였으며, 미국 최초의 포토 저널리스트이기도 했다.⁹⁾

리스의 초기 사진작업에는 슬럼가의 주택개선을 목표로 한 사진촬영에 주력

9) 임웅진, 『사진사상』, 해돋이, 1986, p.16.

하였으며, 이후에는 빈민을 위한 주택건설에 관심을 기울였다. 1888년 뉴욕의 이브닝 선지에 「슬럼지대의 빛을 밝혀서」란 제목으로 사진 12매를 게재하였다.

또한, 1890년에는 「지구의 반은 혜택 받지 못한 생활들(How the other Half Lives)」과 1892년에는 「빈민이 어린이(Children of the Poor)」등의 사진집을 통하여 뉴욕시민들에게 캠페인 하였다. 그리고 리스가 촬영한 일련의 다큐멘터리 사진들로 인해 당시 주지사였던 테오도오 루우즈벨트(Theodore Roosevelt)는 빈민가인 멜베리 밴드(Mulberry Bend)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청결한 주택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1891년에는 뉴욕의 상수도 오염을 발견하고 취수장 부근의 오물처리장과 하수구의 문제점에 대한 사진들을 촬영 하였으며, 그러한 리스의 사진들로 말미암아 뉴욕시 당국은 개선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했었다. 또한 리스의 사진작업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는다면, 사진촬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최초로 마그네슘 플래쉬 파우더(Magnesium Flash Powder)를 사용하였다.

효과적인 인공광원의 사용으로 인해 노출이 부족한 좁은 아파트의 비참한 생활상과 불결한 카페 등의 극단적인 노출이 부족한 상황들, 그리고 밤에도 폭넓게 촬영할 수 있었다.

리스의 다큐멘터리 사진들은 휴머니즘에 기초하고 있었으며, 밝은 표정의 어린 아이 등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모습을 사진에 담았으며, 사진이 사회개혁을 위해 정책의 수정까지 가능케 한 최초의 실증적인 예로 기록되었다.

또한 리스는 사진으로 빈민생활의 실상을 보여주었으며 생활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여론을 형성 하였으므로 당시 그를 슬럼가의 해방자로 불렀었다.

(2) 루이스 하인(Lewis W. Hine 1874-1940)

리스는 생활상의 고통과 현실의 비참함을 사진으로 기록한 최초의 사진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의 사진작업을 계승한 사진가는 루이스 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30년대 F.S.A 사진가들의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을 쌓은 하인은 시카고와 콜롬비아, 그리고 뉴욕의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사회학자이다. 그의 사진에서는 하급계층의 빈민 생활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9년에 「케롤라이나의 방직공장(Spinner at Frame, North Carolins)」이란 사진을 발표 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의 어린이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충격적으로 알리는 사진이었다.

또한 광산이나 불링장에서 노동에 시달리는 어린이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이러한 사진들은 하인이 1908년부터 1921년 사이에 촬영한 5,000여장의 사진 중 일부였고, 아동보호국을 위해 사용되어졌다. 결국 하인의 사진들로 말미암아 미국의회에서는 노동현장 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법」이 제정, 통과 되었다.

1932년 미국 노동자들의 실태를 찍은 「일하는 사람들(Men at Work)」이란 사진집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의 숭고함에 대한 낙천적인 신념과 노동의 긍정성을 표현 하였다. 아마 이 책의 백미는, 세계최고의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102층 빌딩 건설 현장을 1931년 완공 시 까지 찍은 수백 점에 달하는 사진들 가운데서 꼽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진에서는 위험하고 긴박한 약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에서 대담하고 솔직한 기록들을 느낄 수 있다. 하인은 자기의 사진을

「사진에 의한 해설(Photo-interpretation)」이라고 말하면서, 다큐멘터리 사진은 객관적 인식의 방법과 자세를 근본적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하였고, 리얼리즘(Realism)의 정신과 사실적인 표현 방법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최초로 주장하였다.

하인의 다큐멘터리 사진들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포토 스토리라는 흐름으로 촬영되어 졌으며, 보기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위한 것으로 제작되어 졌다. 즉 사진을 시각적 전달수단으로 생각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과 형식을 가장 먼저 생각해낸 다큐멘터리 작업이었다.

리스와 하인은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 미국 사회적 현실에 눈을 돌려 그 현실에 감추어져 있는 모순의 근원, 특히 피지배자 계급으로서 국민들의 괴로운 생활 실태를 사진에 의한 캠페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과 사회 개혁자적인 입장에서 포토 캠페인(Photo Campaign)으로 시각언어인 사진을 사회 개혁운동의 도구로 사용하여 사회의 모순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한 최초의 사진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2) F.S.A 휴먼다큐멘터리 사진가

다큐멘터리라는 미학적 의미에서 시대상황의 인식, 사진매체의 방법의식이라는 수용적 차원에서 정확하게 다큐멘터리 사진은 1935년 미국의 F.S.A 사진 프로젝트에 참가 하였던 위커 에반스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휴머니즘을 기초로 둔 것이 아니라 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를 개조하는 것 (뉴딜 개혁의 목표는 농민들을 자본주의 사회의 건전한 소비자로 다시금 흡수하여 소비생산의 사이클을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이라고 규정짓고 프로젝트의 중요정보나 다큐멘터리의 미학적 탐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미국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대상물을 자신의 감정, 느낌 등 주관적 시각으로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가 “카메라는 사실을 옮기는 도구가 아닌 사실을 해석하는 도구”¹⁰⁾라 믿었던 신념은 존 그리어슨에 의해 정립된 다큐멘터리 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스트라이커의 지휘아래 운영된 미 농업 안정국(Farm Security Administration)의 사진단은 위커 에반스, 벤샬, 칼 마이단스, 러셀 리 등과 함께 도로디어 랭 또한 1935년에 미 농업 안정국에 가담하여 당시 농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 하였다.¹¹⁾ 즉 F.S.A는 경제공황과 더불어 미국 중서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사정을 시각언어인 사진으로 엮어서 호소함으로써 범국민적인 공동대책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행정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진 운동에 참여한 여러 사진가들은 제각기 다른 주제의 작업을 나누어 맡았는데 도로디어 랭의 역할은 ‘일거리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진촬영에 들어갔다.

10) Sally Stein, 「Marion Post Wolcott F.S.A Photographer」, The Friends of Photography, 1983, p.18.

김태진 「다큐멘터리 사진에서의 휴머니즘」, 석사논문, 2000, p.14 재인용

11) 정진국, 「사진의 역사」, 열화당, 1987, p.316.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소설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서 다룬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그녀의 이주 노동자에 관한 기록 사진은 정부로 하여금 서둘러 집단수용소를 건립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는 F.S.A 이후 대표적으로 매그넘(Magnum)의 일원으로 일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사진가로서의 뛰어난 활동은 F.S.A 사진 운동으로 집약할 수가 있다.

그녀가 1936년에 찍은 「이주 노동자의 어머니(Migrant Mother)」가 있다. 이 사진은 캘리포니아 이주 농민들의 생활과 그 상태를 기록한 사진으로 이주자들이 일거리를 찾아 이 캠프에서 저 캠프로 이주하며 생활하는 불쌍한 어머니가 텐트 속에서 어린애에 둘러싸인 모습을 통하여 당시의 미국 노동자의 삶과 얼굴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었으며 근본적인 이민자의 실상을 사회에 던진 것이었다.

그녀는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 무능한 행정에 화살을 쏘았고 어머니의 어깨에 있는 아이들을 통해 시대의 어려운 상황과 미국 국민들의 가슴을 자극 하였다. 피어 피커 농장(Pea Picker Farm)에서 찍은 이민노동자의 어머니는 그녀의 남편인 폴 테일러(Paul Taylor)의 글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게재되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녀는 불안감과 함께 비정한 현실 앞에 처한 인간상을 정면에서 대담하게 묘사한 것이다. 도로디어 랭은 이 사진에 대해 “나는 이 사진을 창조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무언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있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역할을 함축적으로 시사 하고 있다. 그녀의 사진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의 기록과 정서적 감동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책적인 이유로 시작된 다큐멘터리 기록적 사진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의 진실을 느낄 수 있

도록 감동적인 해설 서였기 때문이다.

도로디어 랭은 창의적인 시야와 깊은 공감을 주는 관심사와 피사체를 향한 감수성을 통해 전시의 사회적 혼란과 경기 침체의 단순한 다큐멘터리 기록을 넘어서 보다 한 차원 높은 그녀 자신의 작품에 예술적 특성까지 붙여 넣었다. 그녀는 그들의 생활공간에 큰 역점을 두지 않고 생활공간, 배경 등은 과감히 생략 시키고 인물중심으로 사진을 촬영 하였는데 그들의 얼굴에 그 모든 상황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자 하였다. 따라서 클로즈업 수법을 많이 사용 하였는데 특히 클로즈업할 때 그들의 눈빛이 카메라에 향하도록 하여 사진의 모델이 되는 사람과 후에 사진을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마주치게 촬영하여 더욱 깊은 감동으로 나아가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녀의 사진 속에 등장했던 개개인의 개성으로도 한 시대를 충분히 상징하기에 충분한 사진들을 촬영 하였다.

진정한 휴머니스트였고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심인물 중의 한 사람이었던 도로디어 랭은 사람들의 삶과 느낌을 표출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독특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길을 펼쳐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을 기록함에 있어서 현재를 반영하며 미래를 위한 기록들을 남겼으며 사진의 소재들을 통해 인간의 내면세계와 진실성을 표현한 진정한 휴먼 다큐멘터리의 사진가중 하나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3) 다큐멘터리 사진의 진정성

사진 잡지는 제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대량으로 발간되었으며 1930년대의 사회적 다큐멘터리 운동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수록 하였다. 이 같은 잡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기록 하였고 당시의 역사적 사건과 엄청난 사회 변화에 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전쟁 이후, 그러한 잡지들은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탁월한 위치를 확보 하였으며, 그 잡지에 소속되어 일하던 사진가들은 창조적인 목적과 상업적인 목적이 기묘하게, 때로는 서로 대립하며 혼돈 된 잡지사의 목표를 따라야 했다.

윌진 스미드(W. Eugene Smith)는 잡지사에서 강요하는 제약 내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자신의 창조적인 재능을 최대한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혹은 필요성에서 그는 잡지사가 강요하는 한계선에서 반발하면서 사진 에세이의 범위를 확장하고 무게중심을 대중문화의 영역으로부터 창조적인 예술 무대로 옮기는 데 힘을 보탰다.¹²⁾

윌진 스미스는 미국 사진가 중에서도 가장 예술가적인 기질이 강한 사진가라고 부를 만큼 예술적 교양과 개성을 가진 사진가 이며¹³⁾, 18살의 나이로 《뉴스위크》지의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보도 사진의 길을 고집한 사진가이다.

1936년 미국 저널리즘의 발전소라 불릴 만큼 인기가 있었던 〈라이프(Life)〉지의 출현으로 밝미암아 보도사진의 전문지가 탄생되어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을 넓게 확장시켜 주어 빠른 시간 내 대량의 정보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을 펼쳐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미스의 주된 활동무대였던 〈라이프〉지는 스미스에게 큰 도약의 발판이 되었지만 편집진과의 마찰로 인

12) 이주영 옮김, 『기록으로서의 사진』, 눈빛, 1996, p.147-148

13) 최민식, 『포드레이트 연구』, 에이덴출판사, 1991, p.81

하여 자리를 나와 프리랜서로 사진 활동을 계속 하였는데, 그는 성격이 위낙 강하고 주장이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에 마찰이 잦았다고 한다.

그가 〈라이프〉지를 그만두게 된 계기도 「알베르트 슈바이처 Albert Schweitzer」라는 작품 때문이었는데, 스미스가 슈바이처 박사를 찍을 때의 의도는 보통사람으로 표현하되 다만 그의 생명존중 정신과 인간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인데 편집진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사진을 선별하여 작가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스미스의 「유일한 생존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찍은 수많은 사진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감동적인 사진이라고 평가 되어 졌는데 비록 전쟁이 서로를 살상하는 비인간적인 행위지만 그 속에서도 어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군인의 모습은 진한 인간애를 보여주기에 충분 하였다.

그의 아내 에일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완성된 「미나마타(Minamata)」 사진집을 본 미국의 평론가인 수잔 손탁은 “주민 대부분이 수은 중독으로 신체 장애를 일으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한 유진 스미스의 이 사진은 우리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고뇌를 기록 했으며, 어머니 무릎 위에서 온몸을 비틀며 빈사상태에 있는 딸은 현대 각본 연출법(Dramatugy)의 참된 주제로서 탐구된 페스트의 희생자가 넘치는 세계를 찍은 한 장의 피에타(Pieta : 성모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무릎에 안고 있는 그림상)이다.” 라고 말하였다¹⁴⁾.

저명한 시골의사나 흑인 조산원, 그리고 스페인 마을의 농부, 아프리카 원시민족의 고질병치료에 생애를 바치는 슈바이처 박사 등. 그는 이러한 주제를 충실히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사진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렇듯 그의 포토스토리는 이상주의적인 휴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다.

14) 김태진 「다큐멘터리 사진에서의 휴머니즘」 석사논문, 2000, p.18

폭력과 빈곤, 편견으로 과열되어 가는 이 세상에 대해 그의 사진은 보다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이러한 이상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미국인의 희망과 믿음을 전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도덕적 메시지란 그의 모든 사진에 생명력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였다.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이 그 시대의 사회문제의 상징으로써 표현 되었을 때 최고의 작품이 되었다. 인류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충만한 사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그의 사진은 인간의 사랑과 행복과 평화를 신뢰하여 성실한 인간성 그 자체를 풍부한 그 자신의 애정을 통하여 묘사하였다.

그의 사진세계는 이상주의적 인간애와 인간의 존엄성을 표현하며 항상 성직자처럼 인간의 사랑과 평화를 신뢰하고 성실한 인간성을 지닌 주인공을 등장시켜 자신의 사진에 중심을 이루는 사상인 ‘인간사랑’을 표현한 것이었다. 마지막에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굳건한 믿음을 유진 스미스는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4. 작품의 전개과정 및 작품내용 분석

1) 작품의 전개과정

사진의 역사는 근대 사진과 현대 사진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 사진이 성선설(性善說)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인생관의 사진이었다면 현대 사진은 성악설(性惡說)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부정적 인간관의 사진이라 할 수 있겠다.¹⁵⁾

본 연구에서는 전자에 속하는 긍정적 인생관을 주제로 택했으며 인간을 주제로 사진을 찍으려면 인간의 삶의 현장을 거짓 없이 리얼하게 관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표정을 담아 표현 하여야 한다. 사진가가 촬영한 진솔한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며 인간애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본인의 사진은 인간의 생활상 가운데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온 인간 본성의 모습을 기계적 기록성에 바탕을 둔 하나인 사진으로 표현 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사진적 표현은 명확한 윤곽을 가진 하나의 사상 체계라기보다도 인간 정신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휴머니즘은 인간에 대한 하나의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휴머니즘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휴머니즘에 대한 정당하고도 실증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다.

사진가는 현실의 모습과 인생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임해야 한다.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할 것인가, 사진수단에 의한 나 자신의 전체적인 세계를 재현하는 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사진은 우리들을 위하여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 하면서 연구를 진행 시켰다.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사진이 떠맡아야 할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를 반성해야 한다. 앞의 연구에서 도로디어 랭의 사진적인 특성은 미국

15) 한정식, 『사진의 변모』, 문빛, 1996, p.85.

의 다큐멘터리 사진의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리스와 하인이 벌였던 사진운동과 이어지는 것이다. 제이콥 리스의 경우는 그들 속에 가려진 사건을 세상에 폭로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경향이 강했으며 사회학자였던 루이스 하인의 경우는 어린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에 관한 관심으로 사회적 윤리성을 강조한 경향이 짙다. 도로디어 랭의 경우는 이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하여 이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육체적 가난과 고통 뿐 만 아니라 정신, 영혼의 고뇌와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도로디어 랭은 이러한 단계를 딛고 넘어서 고난과 시련을 겪은 인간으로서의 아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진스미스는 미국 사진가 중에서 가장 예술가적이며 생명존중정신과 인간 사랑에 초점을 맞춘 사진가이다. 스미스의 사진세계는 사랑이다. 제2차 세계대전때 종군 기자로 찍은 수많은 사진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가장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사진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군인의 모습은 역설적이면서도 진한 인간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사진이야기는 이상주의적인 휴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다. 저명한 시골 의사나 흑인 조산원, 스페인 마을의 농부, 아프리카 원주민족의 고질병 치료에 생애를 바치는 슈바이처 박사 등, 주제를 충실히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사진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 하였다.

본 논문의 작품인 「종합병원」도 인간의 사랑, 존엄성을 표현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한 모습을 그려 보았다. 병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불교의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한 언어로서 생·노·병·사이다. 태어나서 늙어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의 삶을 카메라 렌즈에 담아 휴먼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표현 하였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주제를 해석하고 집착하는 관점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

야 하나 사진에 있어서 미적 요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화면 구성에 있어서 구도라든지 초점조절의 문제들은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수반되는 것이며, “사진은 언어로서 주장할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해야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으로 촬영할 것인가 또는 어떤 카메라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되며 주제로서 생활환경과 일상생활의 습관 등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것들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 하여야겠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사회적 현실의 반영임으로 그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창작적인 사진 활동을 통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작품내용 분석

본 연구에 영향을 준 유진 스미스의 사진은 우연히 일어난 일의 르포르타지가 아니고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참혹하게 파괴하는 전쟁에의 고발이었으며, 어리석고 범죄적인 양상을 또 다시 유발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것이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어떤 면에서 작가의 대상에 대한 미적 관심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만을 전달하는 작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며 작가의 주관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단순한 사실의 목격만이 아니라, 그곳에 성립되어 있는 영상을 어떻게 목격하였는가 하는 작가의 태도에 집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기술이 아닌 태도이다.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어서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내용과 조형성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 사진의 초점이 된다고 하겠다.

다큐멘터리 사진의 중요성은 인간사회의 생활을 포착하고 사회현상과 사건

등을 기록, 그것들을 진실로써 입증하여 단순한 보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전달하여 강한 호소력과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의적인 연출은 피하고 현실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시점을 앵글의 중심에 담아 형태화 하였으며, 또한 병원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만 볼 수 있는 생명의 탄생부터 진료장면, 중환자실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어느 환자의 모습 등을 흑백 필름에 담아 인간의 생·노·병·사를 휴먼 다큐멘터리로 표현 하였다.

유진스미스와 도로디어 랭의 인간 사랑이라는 대 명제에 감흥을 받아 촬영 하였으며, 병원이라면 질병과 죽음이라는 어두운 세계가 아닌 밝고, 따뜻하고 사랑의 힘이 넘치는 곳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촬영에 임하였다.

Ⅲ. 결 론

어떤 사실을 말이나 글로 전달할 때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진은 그렇지 않다. 사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므로 글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말보다 더 전달력이 강하다. 사진을 통해 드러난 사건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며 거짓이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진은 의사소통과 기록의 의미로 언어와 문자의 구실을 대신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사진영상이 현실을 단순히 복제한다는 의미가 강했으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점차 매력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피사체를 촬영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사진은 더 이상 기술적인 범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진작가의 의도에 따라 창작예술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사진은 순간을 영원으로 만들며, 빛으로 창조하는 예술이라는 정의가 따라 다닌다. 시각적 이미지는 촉각, 후각, 청각, 미각보다는 더 쉽게 일반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진을 통한 이미지를 개념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객관적인 뉴스 사진과 달리 사진가가 사건과 같은 현상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상황(사회문제), 현실을 올바르게(비평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그 삶 자체에 깊이 파고들어 본질적인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 카메라로 삶의 일부를 선택하고 편집하며, 사진가의 주관적인 미학적 기준에 따라 사실을 극화하여 웅변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킨다.

근, 현대 사진이 사람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에 그 중심을 두고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다. 인간의 생활을 완벽하게 기록하기 위해서는 거짓은 물론,

일체의 인위적인 조작을 피해야만 했다. 기계의 중성성과 함께 기계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과학적 영상을 존중함으로써 사진가가 기록하는 사실의 객관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그 사진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종합병원의 이미지가 탄생을 시작하여 밝은 미소와 행복한 인간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1. 정진국. 「사진의 역사」 열화당, 2003
2. 임영균 역. 「다큐멘터리 사진론」 눈빛, 1997
3. 임응식. 「사진사상」 해돋이, 1986
4. 이주영 옮김. 「기록으로서의 사진」 눈빛, 1996
5. 최민식. 「포트레이트 연구」 에이멘출판사, 1991
6. 한정식. 「사진의 변모」 눈빛, 1996
7. 진동선. 「영화보다 재미있는 사진이야기」 푸른세상, 2004
8. 김우룡. 「유진 스미스」 열화당, 2003
9. 이상일. 「다큐멘터리 사진의 정의와 역사」 Open Window 두오, 2003
10. 박주석. 「사진 이야기」 눈빛, 1998

(외국문헌)

1. William Stott. 「Documentary expression and thirties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2.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Springfield, Mass.: C.C. Merriam
Co., 1956

(국 내 논 문)

1. 박희진 「다큐멘터리 사진운동으로서 FSA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1994
2. 김태진 「다큐멘터리 사진에서의 휴머니즘」 석사논문, 2000
3. 반응기 「리얼리즘문학과 다큐멘터리사진 연구」 석사논문, 1998

부 록

1. 도 판 사 진

도판 1 : 제이콥 A 리스 (이탈리아 네마주의의 집)

도판 2 : 루이스 하인 (캐롤라이나 방직 공장)

도판 3 : 토로디어 랭 (이주 노동자의 어머니)

도판 4 : 유진 스미스 (낙원 뜰에 이르는 길)

도판 5 : 유진 스미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도판 6 : 유진 스미스 (도모꼬를 목욕시키는 어머니)

도판 7 : 유진 스미스 (분만을 돕는 모드)

도판 8 : 유진 스미스 (유일한 생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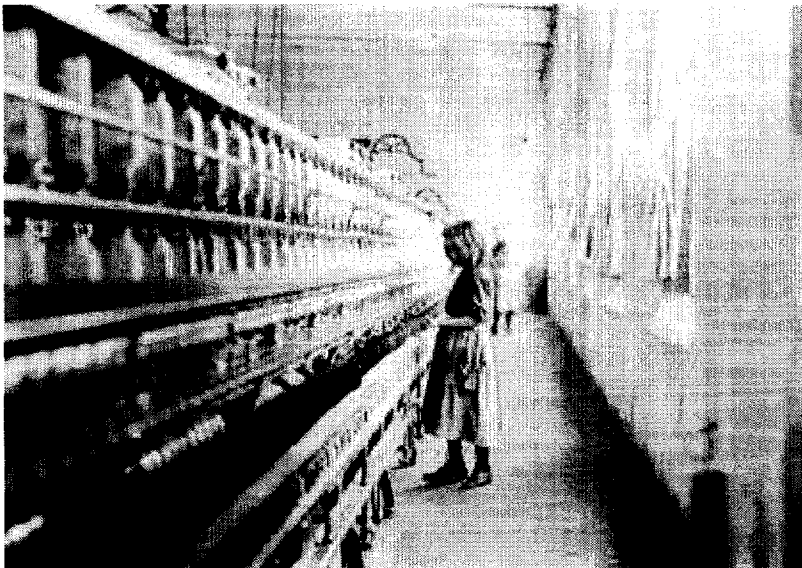
도판 9 : 유진 스미스 (시골 의사)

2. 작품 사진

작품 : 1 ~ 34



제이콥 A. 리스 (이탈리아 농마주의의 집)
도 판 1



루이스 하인 (캐롤라이나 방직 공장)
도 판 2



도로디어 랭 (이주 노동자의 어머니, 니포모, 캘리포니아)
1938. 젤라틴 은판사진. 현대미술관, 뉴욕

도 판 3



유진 스미스 (낙원 뜰에 이르는 길)

도 판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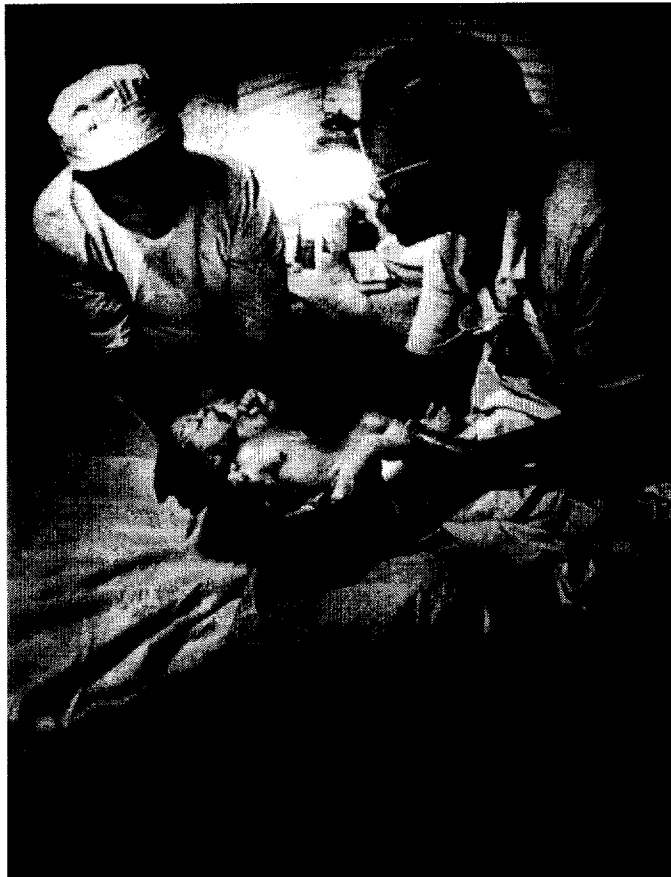
유진 스미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도 판 5



유진 스미스 (도모꼬를 목욕시키는 어머니)

도 판 6



유진 스미스 (분만을 돕는 모드)

도 판 7



유진 스미스 (유일한 생존자)

도 판 8



유진 스미스 (시골 의사)

도 판 9



사 진 1



사 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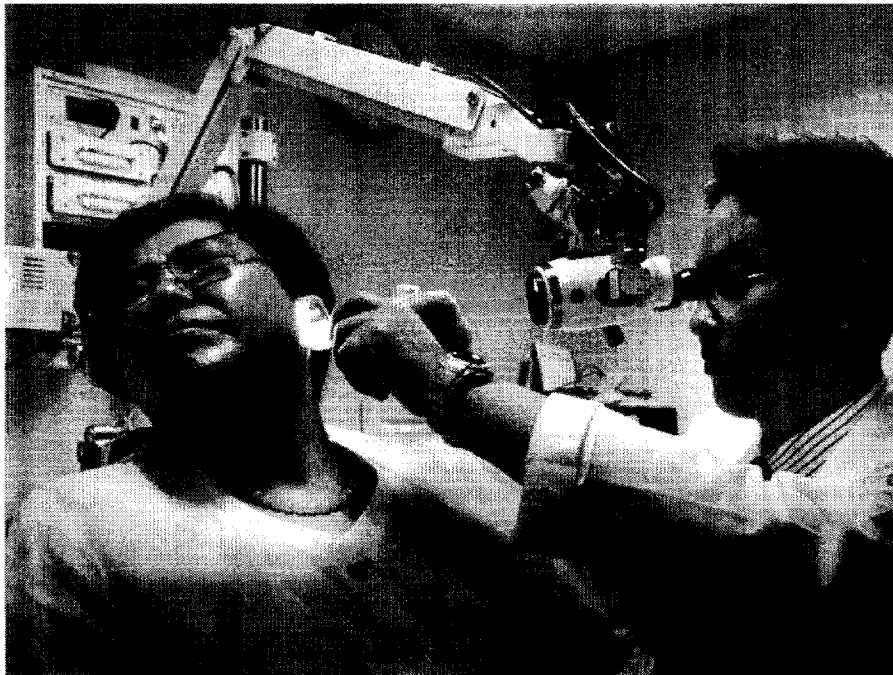
사 진 3



사 진 4



사 진 5



사 진 6



사 진 7



사 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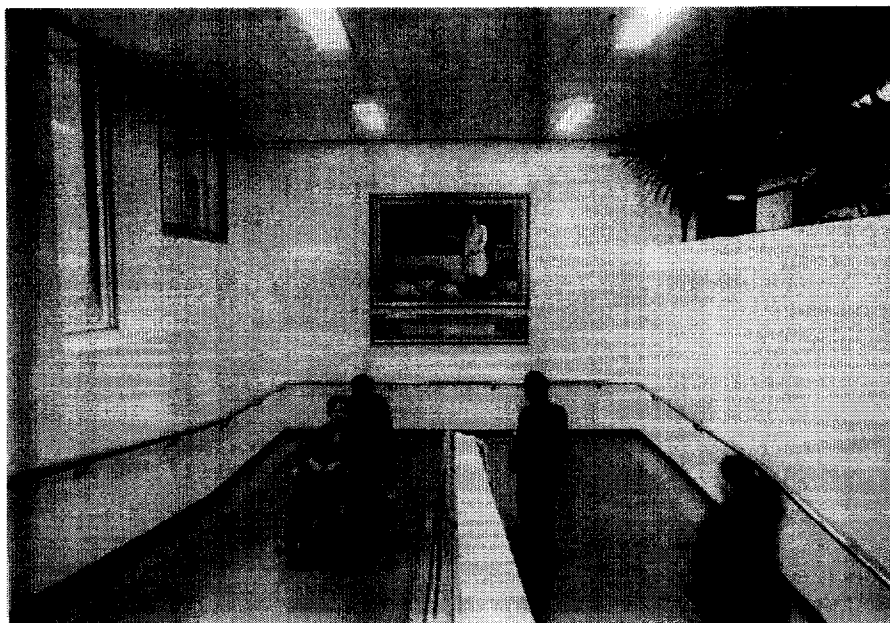
사 진 9



사 진 10



사 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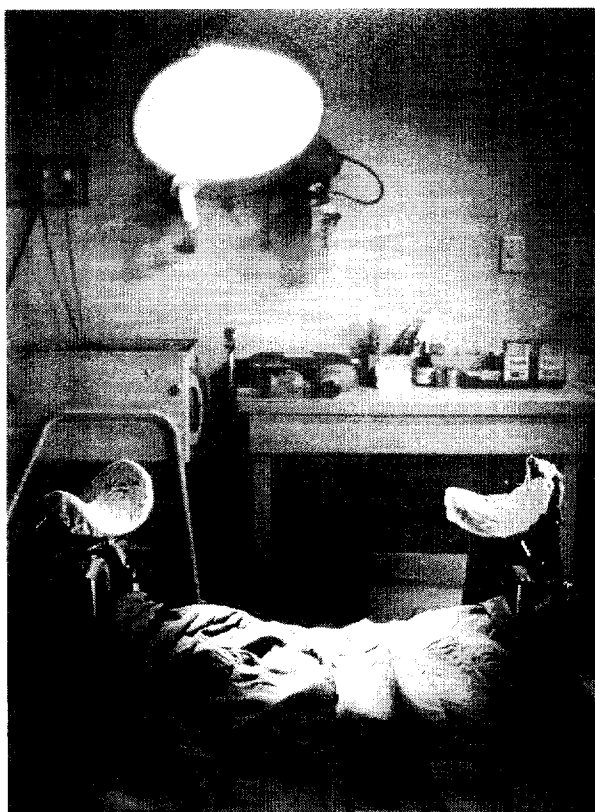
사 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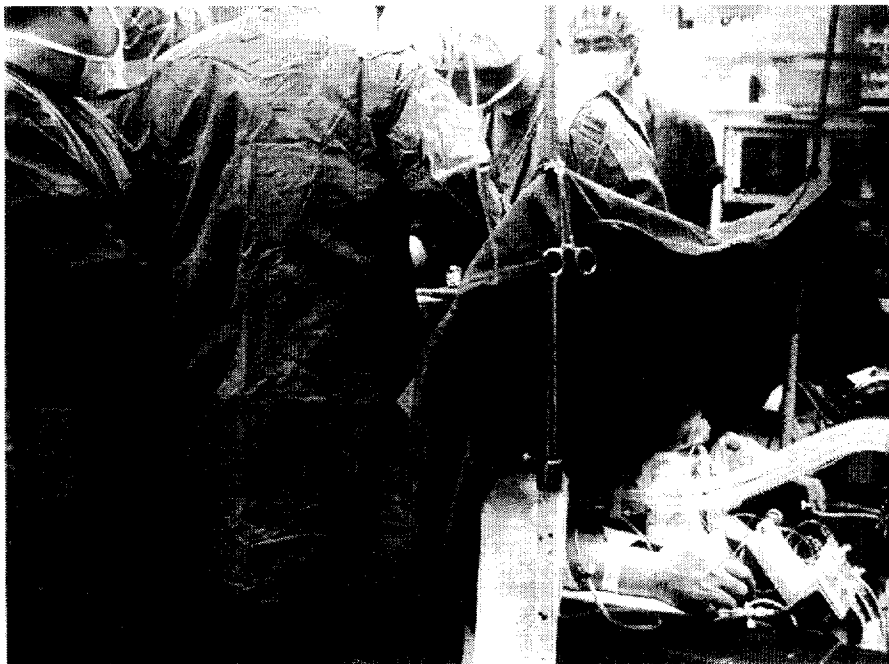
사 진 13



사 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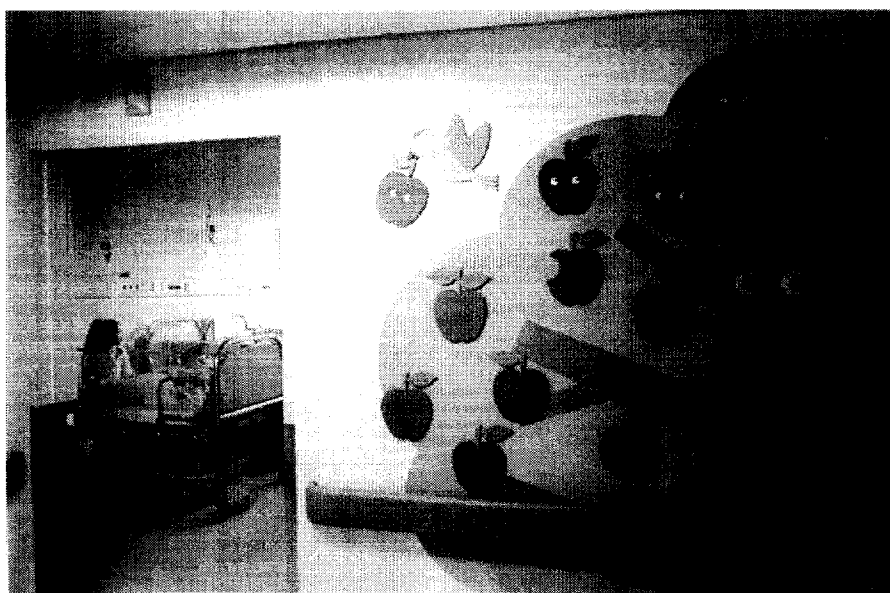
사 진 15



사 진 16



사 진 17



사 진 18



사 진 19



사 진 20



사 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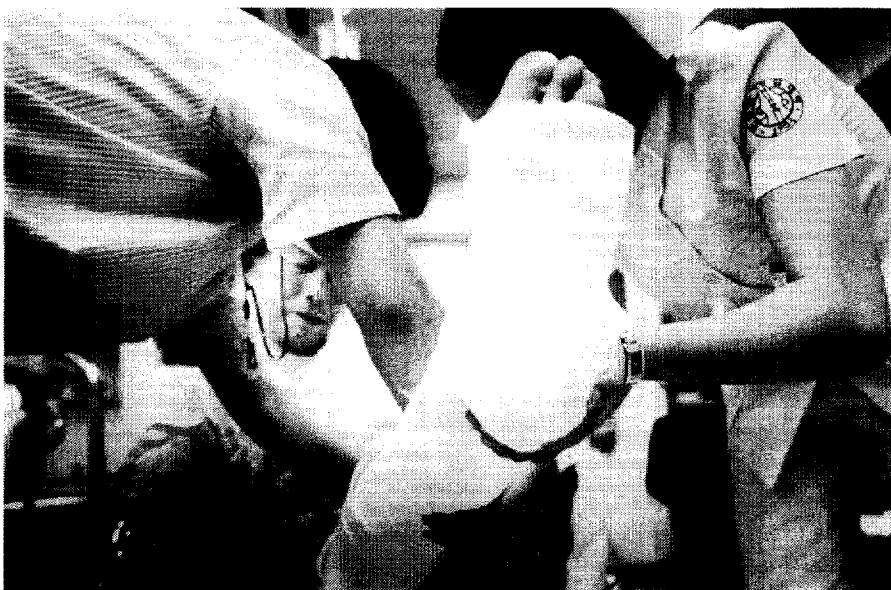
사 진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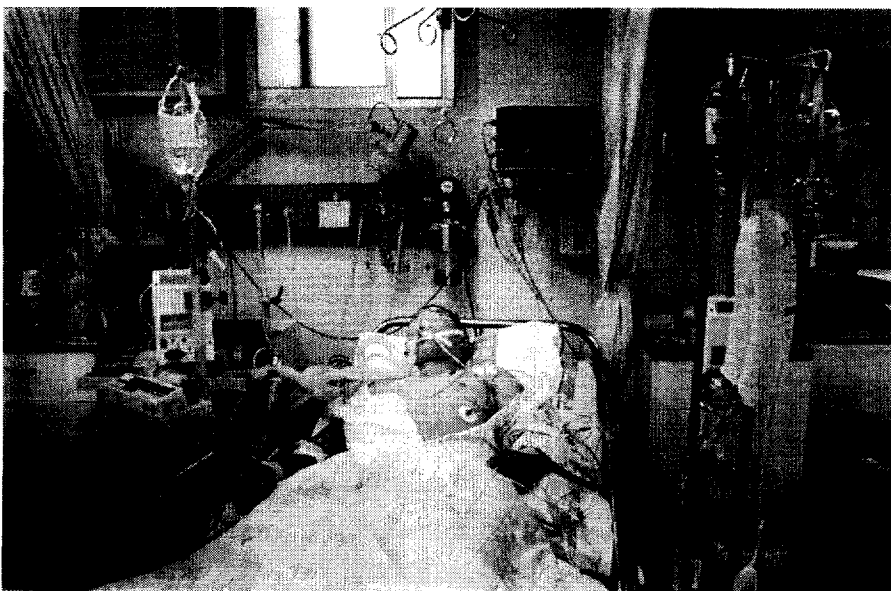
사 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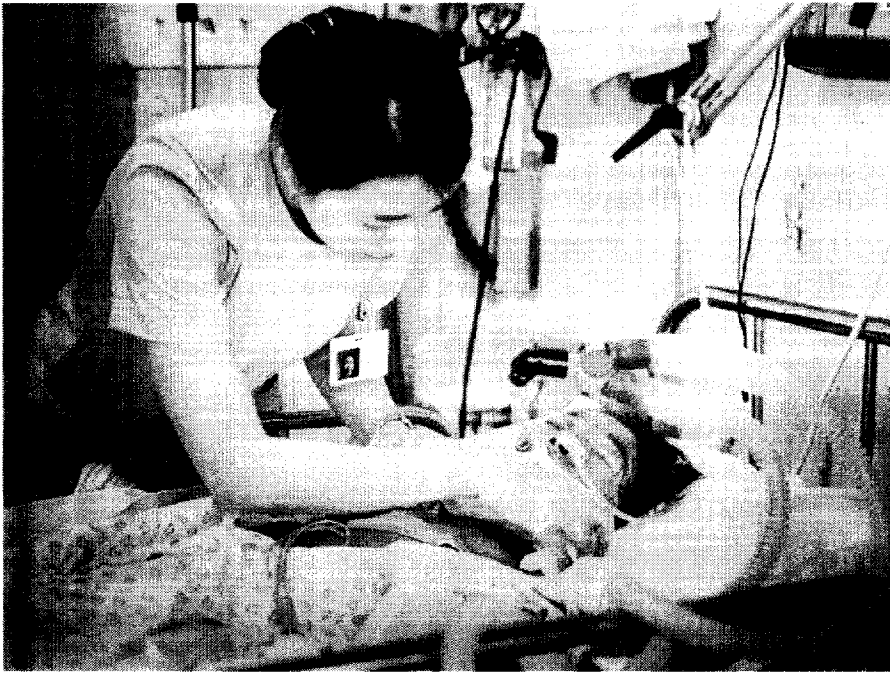
사 진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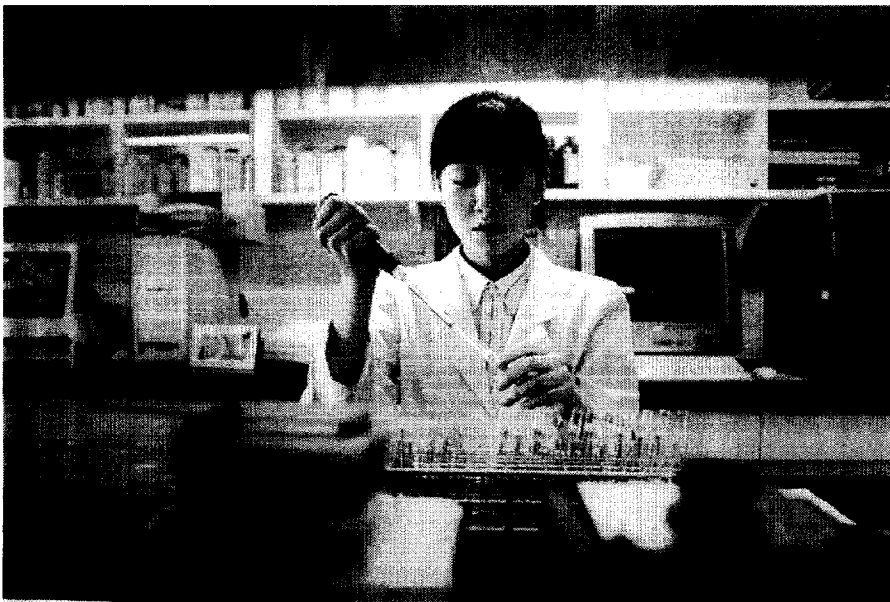
사 진 25



사 진 26



사 진 27



사 진 28



사 진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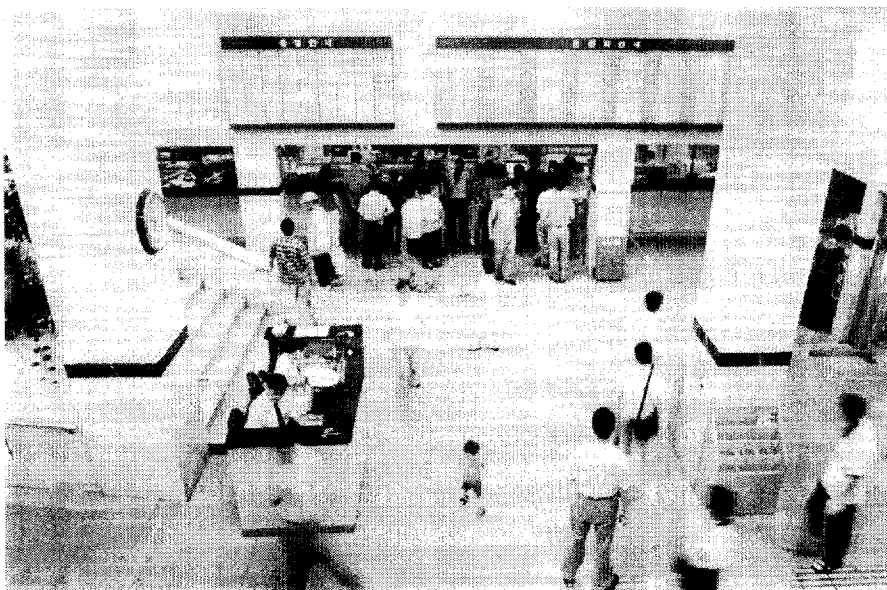
사 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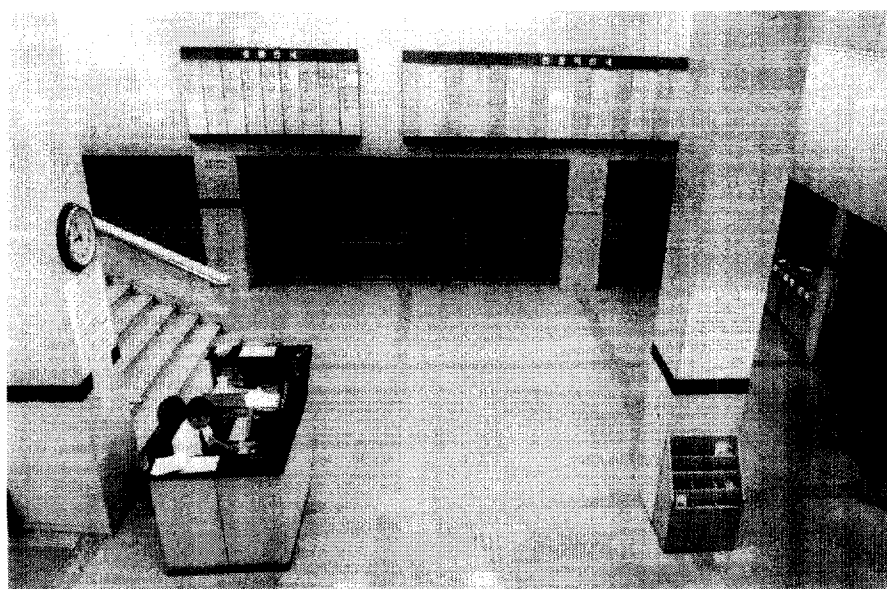
사 진 31



사 진 32



사 진 33



사 진 34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정용석 지도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쁜 일정 속에서 꼼꼼히 챙겨주신 오정수 교수님, 황철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대구에서 저의 작품전과 논문을 충실히 완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이상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깊은 관심과 격려로서 지도해 주신 배동준 교수님, 신금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좀 더 나은 작품을 촬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해 주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조광현 병원장님, 산부인과 김기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김태형 총무부장님을 비롯하여 총무부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으나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여러 교수님과 선·후배님 그리고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자라준 준영이, 혜영이가 너무 고맙고 그동안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학생이 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뒷바라지 해 준 아내 정현정에게 가슴깊이 묻어둔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한평생을 아낌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 작은 위로라도 되기를 바라며 이 논문을 드립니다.